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2. 10. 24

정부·국회

작업환경측정 현황('22.09.13.현재) ※ '20년 측정기관 평가 등급 기재

-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22.9.13. 현재, 190개소)
- *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22년 실시중이며, 평가 완료 전까지는 '20년에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결과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901272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일선 건설현장 소장과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9월 26일(월) 오후 2시, 고용노동부 별관에서 올해 10월 말 발표 예정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과정의 일환으로서 일선 건설현장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현장소장') 10명과 간담회를 했다.
- 건설업종은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2021년 50.4%)하고 있고, 중대 재해도 기초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추락, 부딪힘, 맞음 사고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 **중략** -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생생한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10월에 발표할 예정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담을 예정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006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에서 쉽게 따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 4개 업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 **연말까지 위험업종 대상 총 20개 가이드북 제작 예정**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월 29일(목) 50인 미만 고위험 4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 '가이드')」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C. 251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C. 134), 육상화물취급업(H. 529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N. 74100)이다.
- 4종의 가이드에서는 각 업종에서 발생한 주요한 중대재해(사망사고)의 발생 원인을 전체 공정 흐름도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여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다.
- 또한, 각 업종별로 중대재해(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내용, 비상시 조치매뉴얼 등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서식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현장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025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 신규화학물질 62종 검토·공표, 31종은 유해성·위험성 확인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2종 중 2-(1,1-디메틸프로필)안트라퀴논과 2-(1,2-디메틸프로필)안트라퀴논의 혼합물 등 31종에서 발암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취급 물질에 대한 적절한 개인보호장구 지급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032

(참고) 이정식 장관,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 개최

- 현 정부 출범 이후 노사관계 지표는 안정적인 기조, 근로손실일수는 103천일로 지난 정부(349천일~870천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사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 해결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당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9일(목) 14:30, 6개 지방청장과 2개 대표지청장 등이 참석한 3차「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노사관계 성과를 공유하고, 노사관계의 안정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 향후 불안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노사갈등을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확고한 기조를 갖고 일관되게 대응한 결과, 현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볼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028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표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고합니다.
- * 세부 물질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901192

(참고) 고용노동부, 화성 제약회사 폭발사고 관련 긴급점검 및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운영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9.30.(금) 오후 2시 20분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약회사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 당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폭발사고 현장에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및 산재예방지도과,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소속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긴급 출동하여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설비인 반송기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을 지시하였다.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사고대응 및 수습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지시하였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039

가을철 공장.축사 등 지붕 수리 시 추락 주의

- '22년1~9월 지붕공사 사고사망자 28명, 고용부 10~11월 위험주의보 발령
- 한국산업단지공단, 농협과 협력하여 홍보·계도 활동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중주)은 가을철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9.7.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10.4.부터 11.30.까지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농협중앙회 등과 협업하여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 지붕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기인물1)로 지난 3년간 사고사망자는 138명에 달했으며, 주로 20억원 미만2)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한다.
 -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붕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21.11.19, 안전보건규칙 제45조),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으며,주요 재해유형인 '채광창(skylight) 파손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채광창 덮개 지원사업(붙임3)도 실시하고 있다.
 - 그러나 올해도 지붕공사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 지난 1~9월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28명 발생했으며, 공장.축사 지붕 개보수 공사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농협중앙회와 협업하여 공장과 축사에 대한 맞춤형 홍보계도를 실시한다(10~11월).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041

(참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자율 예방' 주제로 대국민 토론회 진행

-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위해서는 예방적 감독체계 필수적"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월 6일(목) 오후,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방향인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노사, 전문가, 대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담길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구축과 현장에서의 원활한 작동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 중략 -
-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20일 오후에는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를 주제로 두 번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지원', '참여협업을 통한 안전보건 질서 확립', '노사, 국민이 함께하는 성숙한 안전의식.문화 조성', '현장체감형 산재예방 시스템 구축' 등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사고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10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050

(참고) 내 질병, 혹시 직업병은 아닐까 의심해 보세요

-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연찬회 개최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30.(금) 14:00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찬회는 전국 6개소 직업병 안심센터 관계자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업성 질병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100여 명이 모두 모여, 직업성 질병재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주요 질병재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035

‘대전 아울렛 화재 사고 관련’ 전국 대규모 유통업체 긴급 불시 점검(10.11.~10.31.)

- 하역장,주차장 등 위험요인 점검·개선에 집중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부터(10.11.) 31일까지 전국 대규모 유통업체(복합쇼핑몰 등)를 대상으로 긴급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대전에서 발생한 아울렛의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작업 중이던 근로자 등 8명 사상)가 있었던 만큼 유사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전국 650개 유통업체를 확정하고 이 중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 특히 대규모 유통업체(복합쇼핑몰 등)의 하역장,주차장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조치와 근로자 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수칙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이 세심히 살피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유통업체는 하역장,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를 즉시 자율점검(위험성평가 등)하고 부족한 안전조치가 확인되면 바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또한 “화재 사고를 떠나 하역장,주차장 등에서 유독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사업장의 세밀한 관리와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061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10.12.) 통해 1,500여 개 사업장 일제 점검

- 지난 15개월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락, 끼임 중대재해 감소 -
- 고용노동부는 오늘(10.12.) ‘제29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500여 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800여 명 등 총 1,300여 명이 긴급자동차 350여 대를 동원하여 1,5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기본안전 조치를 일제 현장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50인(억 원) 미만 건설,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끼임 사망사고(표1 참조)를 줄이기 위해 지난 ‘21.7월부터 ‘22.9월까지(15개월) 매월 2차례(총 28회)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의 운영 결과(수치적 변화)를 발표했다.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065

산업안전보건교육, 꼭 필요한 내용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안전보건교육을 방자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예방 -
- 고용노동부는 10월 14일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반장 : 권기섭 차관)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 일정 공유 (12월, 고시 개정)
- 안전보건 관계자 등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기준 확대 (12월, 고시 개정)
-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합리화, 교육 시간 명확화 (‘23년, 시행규칙 개정)
- 비대면 실시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형태 인정 (12월, 고시 개정)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확대 (12월, 고시 개정)
-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 개선 (‘23년, 시행규칙 개정)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065

산업현장 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

- 이동식 사다리 제작.사용기준 마련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증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개선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동식 사다리 제작.사용기준 마련",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증 재질 개선(알루미늄)"등 산업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안전규제를 개선한다.
- 먼저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준과 제작기준이 마련된다.
-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재질이 개선된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08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10.18.)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등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화) 공포했다.
-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21.10.23. 사망 4명, 부상 17명)등의 유사 사고의 재발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및 사망사고 다발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 정비 등 그간의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다.
- 10월 1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 ②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
 - ③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기준 명확화
 - ④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정비
 - ⑤ 향타기.항발기 관련 규정 합리화
 - ⑥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작업의 예외적 허용
 - ⑦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 관리 규정 합리화
 - ⑧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095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위한 소통 나선다

- 지난 6일, '자율 예방'주제에 이어 두 번째 토론회 개최
- "안전에 있어서는 노사가 하나의 팀(One-Team)", "문화변화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꾸준한 노력 필요해"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0월 20일(목) 오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수립을 위해 노·사단체, 전문가가 참석하고, 일반 국민이 현장 방청,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 지난 6일에도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성공적인 도입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지난 토론회도 유튜브 생중계로 이뤄졌으며, 유튜브를 통해 참여한 시민들이 댓글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으며, 질문한 내용에 토론자들이 답변하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 이번 토론회는 곧 발표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방향인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해 노사단체,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 오늘 토론회에서는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참여하여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113

경기도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사망사고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현장방문 및 SGC이테크건설 전국 시공현장 감독

-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2.10.21.(금)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 * (사고개요) '22.10.21.(금) 13:05경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KY로지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슬라브가 붕괴하여 근로자 2명 사망, 3명 부상(치료 중)
-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전면작업중지를 명한 후,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다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평택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사고수습 및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117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노동교육 발전방안 현장에서 듣는다

- 개원 2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 '교육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실은 10월 27일(목) 1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고용노동교육 발전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교육원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노동교육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고용노동교육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주된 취지가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동계, 경영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고용노동교육 발전방안 현장에서 듣는다'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 먼저, 교육원의 김성환 교수가 '고용노동교육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교육원의 교육성과 및 개선사항, 발전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어 토론은 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이호발 국가공무원노조 사무총장,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 센터장, 김성란 민주노총 교육원장,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이 참여하여 고용노동교육 발전을 위한 제안과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고용노동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원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121

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즉각 시행

- 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 최근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 15일 에스피엘(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에스지씨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 2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윤석열 대통령 또한 10월 20일 기자단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에스피엘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한편, 산업안전과 관련된 제도가 실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끔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 즉각 시행한다.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124

고용노동부,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사망사고 관련, 합동수사전담팀 구성.전방위 수사

- 고용노동부는 10.21.(금)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발생한 붕괴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사고에 대해 동بار리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 방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 이에, 10.21.(금) 경기지청, 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본부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합동수사전담팀(15명)을 편성하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아울러, 이번 붕괴사고 4시간 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 등 사고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125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 [9/21, 서울 강남구] 작업 중 떨어짐
- [9/23, 단양 적성면] 작업 중 낙반에 의하여 매몰
- [9/23, 제주 한경면] 작업 중 수조에 빠짐
- [9/24, 화성 마도면] 작업 중 떨어짐
- [9/22, 아산 권곡동] 고소작업대가 전도되어 떨어짐
- [9/26, 서울 서대문구] 작업 중 떨어짐
- [9/26, 여수 중흥동] 작업 중 떨어짐
- [9/27, 부산 영동구] 실외기 철거 작업 중 떨어짐
- [9/28, 포항 흥해읍] 크레인으로 내리던 자재에 머리가 부딪힘
- [9/29, 평택 포승읍] 줄걸이에서 탈락된 인양물에 맞음
- [9/29, 부천 중동] 달비계 탑승 중 떨어짐
- [9/29, 청양 운곡면] 줄걸이에서 빠진 철근 다발에 맞음
- [9/29, 의정부 가농동] 계단 단부에서 떨어짐
- [9/30, 화성 향남읍] 반응기에서 아세톤 누출 및 화재
- [10/2, 울산 무거동] 도장 작업 중 떨어짐(10m)
- [10/3, 사천 곤양면] 페인트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짐
- [10/4, 창원 성산구] 코일에 끼임
- [10/3, 순천 해동면]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넘어지면서 앵글에 머리 부딪힘
- [10/4, 수원 팔달구] 개구부에서 떨어짐(3.5m)
- [10/4, 부산 동구] 타이어에 맞음
- [10/5, 인천 계양구] 수직사다리로 내려오던 중 떨어짐
- [10/5, 포천 가산면] 무너지는 원단에 맞음
- [10/5, 서울 은평구] 고소작업차 넘어짐
- [10/5, 익산 어양동] 밭에 전신 쓰임
- [10/6, 당진 송악읍] 넘어지는 H빔에 깔림
- [10/7, 창원 성산구] 소화설비 작동으로 이산화탄소 누출
- [10/6, 여수 화양면] 비계 외측에서 떨어짐
- [10/8, 시흥 정왕동] 천막 설치 작업 중 떨어짐
- [10/8, 서울 강남구] H빔 피하다가 굴착면으로 떨어짐
- [10/10, 인천 연수구] 달비계 작업 중 떨어짐
- [10/11, 세종시 연서면] 펌프카 붐대와 거푸집 사이에 끼임
- [10/11, 전남 영암군] 지붕에서 작업 중 채광창이 파손되어 떨어짐
- [10/11, 남양주 진접읍] 지게차 레버 오작동으로 헤드가드와 백레스트 사이에 끼임
- [10/12, 평택 비전동] 도색 작업에 사용한 로프를 정리하던 중 떨어짐
- [10/12, 청주 흥덕구] 굴착기 넘어져 운전원 이탈로 인한 충격
- [10/14, 남양주 와부읍] 수압으로 튀어나온 관에 맞음
- [10/14, 하남 풍산동] H빔 해체 중 함께 떨어져 철근에 찔림
- [10/15, 평택 팽성읍] 작업 중 교반기에 끼임
- [10/15, 강원 양양군] 회전하는 굴착기에 부딪힘
- [10/16, 천안 서북구] 크레인 훅 파단되어 떨어지는 인양자재에 맞음
- [10/17, 김해 한림면] 산소 절단 작업 중 화재
- [10/17, 인천 연수구] 지붕에서 방수 작업 중 떨어짐
- [10/18, 양평 서종면]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을 밟고 떨어짐
- [10/18, 밀양 상남면] 지붕에서 측정 작업 중 떨어짐
- [10/19, 거제 거제면] 지게차 작업 중 우측 뒷바퀴에 끼임
- [10/19, 강원 원주시] 폐기물 차량의 적재함과 파카 사이에 끼임
- [10/21, 안성 원곡면] 콘크리트 타설 중 바닥 붕괴(사망 2명→3명)
- [10/21, 포항 장흥동] 크레인 훅에서 떨어진 달기구에 맞음

인듐(Indium) 취급 작업자의 직업병 발생 경보

- 최근 인천소재 인듐 재생사업장에서 폐 인듐주석산화물(ITO)의 분쇄, 환원, 전해 등의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다수의 인원이 직업병 요관찰자, 1명은 간질성 폐질환 직업병으로 확인되는 재해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인듐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직업병 발생 재발방지를 위해 첨부된 「인듐 취급 작업자의 직업병 발생 경보」를 인듐 취급과 관련된 근로자들에게 신속히 전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3591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결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포스터, 표지 등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 수상관련 사항은 수상자 개별 통보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3595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설명] 국민일보 SPL사고 보도관련 설명자료

1. 주요 기사내용
 (전략) '국민일보가 18일 확보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SPL 끼임 사고 최초 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면...(후략)
2. 설명내용
 공단은 SPL 사고와 관련하여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한 바 없음.
 - 현재 사고조사 지원을 진행 중이며 '재해조사 의견서'는 사고조사 완료 후 작성됨. <끝>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36214&article.offset=0&articleLimit=10>